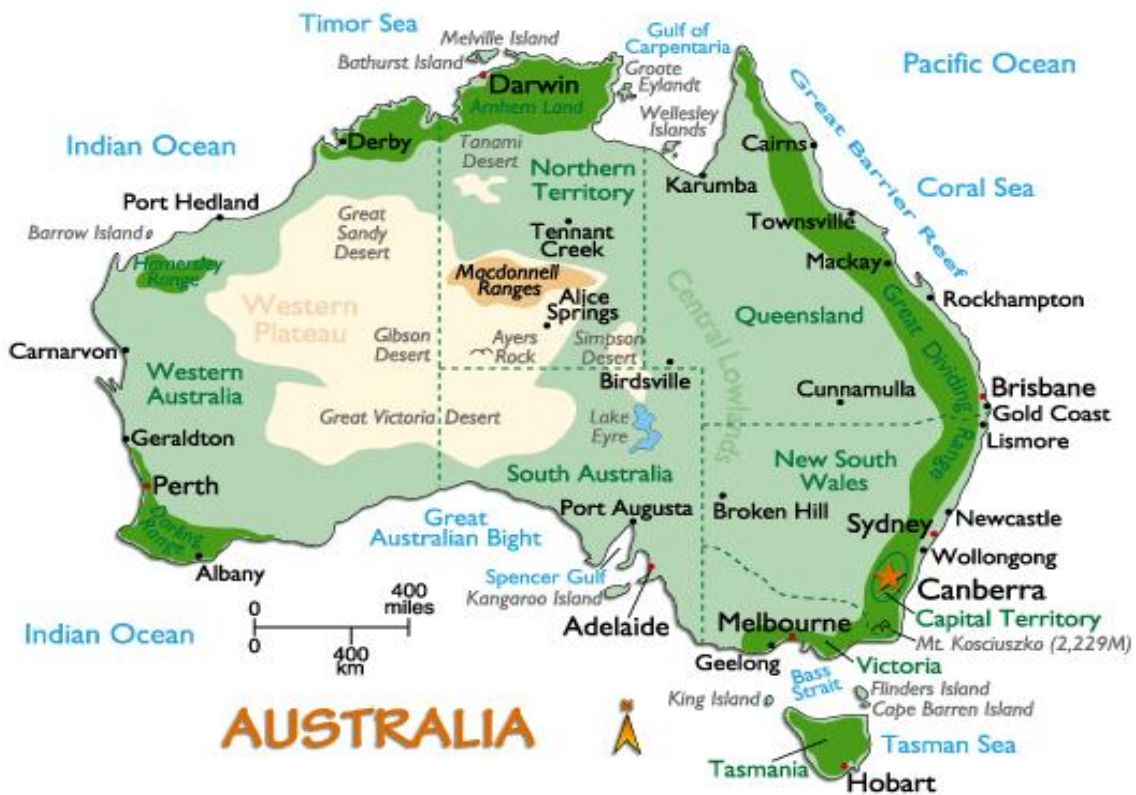


최근 호주 경제동향 및 시장여건 분석 내용

가. 국가개황

- 지역 :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 면적 : 768만km²(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 인구 : 2,248만 5천명(2011년 기준)
- 언어 : 영어, 원주민어
- 민족 :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아랍계(1.4%) 등
- 정부형태 : 영연방 입헌군주제
- 의회제도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Julia Gillard 총리
- 주요도시 : 캔버라(Canberra, 수도), 시드니(Sydney), 멜번(Melbourne) 등



1) 경제주요지표

구 분	2010	2011	2012(추정)	2013(전망)
GDP(US\$bn)	1,243.8	1,490.1	1,541.0	1,609.1
성장율	2.6%	2.4%	3.3%	2.9%
1인당 GDP(US\$)	39,952	41,183	42,791	44,211
실업율	5.23%	5.1%	5.2%	5.75%

2) 경제동향

□ 2012년 3.3%대 성장, 2013년 성장세 다소 둔화 전망

- 호주는 지난 21년간 연평균 3.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왔음
- 그러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철광석 등 원자재의 국제 가격 하락, 대미 달러 대비 호주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2012년 기준) 하며 당초 예상인 4%대 성장에 미달
- 2013년 역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어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동서부 경제격차 심각 수준

- 2011년 기준 동부 3개 주가 인구의 77.1%, GDP의 74.9%를 점유할 정도로 인구 및 경제 활동이 대부분 동부 해안지대에 집중
-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사업 붐으로 인해 2000년도 이후 서부 경제가 호황을 누리기도 했으나, 최근 에너지 소비 대국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서부를 중심으로 했던 호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서 동서부 차이가 심화됨

□ 식품산업 규모

- 식품 수출입 시장규모는 49억 2000만 A\$로 적자 기록(2012년 기준)
 - 수입 : 26억 A\$ / 수출 : 23억 2000만 A\$
 - 지난 10년간 수입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적자 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수입국 : 미국, 뉴질랜드, 중국, 영국, 독일 등
 - 주요 수입품목 : 식품·음료(55.8%), 식료품(42.3%), 신선식품(1.9%)
- 주요 수출국 : 일본, 미국, 뉴질랜드, 중국, 한국 등
 - 한국식품의 대호주 수출은 1% 미만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호주의 수입 의존도는 미미한 수준이나만, 호주에 있어 한국은 5번째 주요 수출국에 해당됨

3)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호주는 6.25 한국전쟁 참전 및 1961년 수교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음
- 對호주 농식품 교역규모

(단위 : 백만불 / %)

구분	2011	2012	증감률
수출	93	106	14.0
수입	2,820	2,887	2.4

- 對호주 주교역품목
 - 호주는 한국에 주로 콩기름, 콩깻묵, 옥수수, 생선류 등을 수출함. 특히 콩기름은 對한국 수출 품목 1위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4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 한국으로부터는 주로 커피 추출물, 파스타, 빵, 쌀 등을 수입

나. 시장특성

1) 호주는 열대 및 온대기후 농산물의 주요 생산 및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가공식품의 수입국이기도 함

- 85%가 넘는 호주 슈퍼마켓의 제품은 수입제품이나 수입 재료로 생산되거나 현지 외국기업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산됨
- 다만 호주 인구가 점점 다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2) 유기농, 친환경, 웰빙 트렌드 지속

- 호주는 다민족으로 이뤄진 이민국가로, 최근 10~20년 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채식주의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오가닉 제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호주가 오가닉 원료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가공능력 부족으로 해당 품목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비스킷 부문에서 쌀과자의 매출액 규모는 2009년 10.5% 상승했으며 쌀 및 곡물과자 매출액 부문 또한 2009년에 7.4% 규모 성장하였음
-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MSG 첨가물, 인공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식료품만 공급할 것을 선언하는 등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임

3) 아시아 식품의 수요 확대

- 음식 문화의 다양화 및 아시아인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식품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호주농업연구개발공사(RIRDC)가 2009년 말에 발표한 호주의 아시아 가공식품(동남아식품으로 인도식품은 제외됨) 시장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의 아시아식품 시장규모는 1993년 약 1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4배인 약 24억 달러로 성장하였음. 연평균 성장률은 7% 정도이며, 이는 연평균 전체 식음료 가계지출 증가율인 3%('89~'04년 호주농업자원경제국 ABARE)를 3배 이상 웃도는 기록임
-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식품의 소비자 수는 1991년 270만 명에서 2006년에는 351만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아시아 출신이 160만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시아 식품을 정기적으로 즐겨 소비하는 호주 사람도 150만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아시아계 이민자와 임시 체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양계 호주인에게도 아시아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에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계 프랜차이즈들이 큰 인기를 누리며 아시아 식품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4) 간편 조리식품에 대한 소비 선호도 증가

- 높은 비율의 도시화, 직장 여성 및 1인 가구수 증가 등에 따라 시리얼과 스낵 바 제품, 베이컨, 가공냉장육, 저민 고기 등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사 대체품의 소비가 증가함
- 또한 바쁜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테이크아웃 식품 등 간편 조리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그 종류도 점차 다변화됨

다. 현지 유통업체 현황

□ 유통구조

-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일 시장권으로서 식생활 및 상관습이 유사하고 대형 바이어, 유통업체는 동일 시장권역으로 활동하고 있어 홍보, 판촉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
 - 주요도시간 거리가 멀어 유통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큼
- 수입유통 구조는 수입상에서 Wholesaler/Distributor를 거쳐 소매상으로 연결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근 영역확장 경쟁이 활발한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직수출 채널확보 노력 필요
 - 대형 유통체인은 Buying Agent를 통한 구매방식을 취하기도 함
- 현지 농식품 시장의 대부분을 2개의 대형마켓(Woolworths, Coles)이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 농식품은 아시아계 에스닉 식료품점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호주의 유통단계는 해외공급자 → 수입상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순으로 유통단계는 거의 비슷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유통단계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고, 에이전트가 끼어들기도 함

- 영국식의 보수적 상관습을 갖고 있어 첫 거래에 대량주문을 내는 경우가 드물지만, 수차의 소규모 거래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거래선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

□ 소비시장 현황

- 호주의 유통시장은 약 84천 업체들이 영업 중이나 WestField, Coles Myer, Woolworths, David Jones사 등 대형 유통그룹들이 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호주는 각 지역사회별로 1개씩의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유일한 쇼핑공간으로 이들 기업들과의 거래 없이 소매시장에 진출하기란 매우 어려움
- 호주는 Woolworths와 Coles 2개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식품의 70%를 유통하고 있으며, 온라인부문을 제외한 호주 전체 소매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처는 슈퍼마켓이 63%로 절대적임
 - 최근 Woolworths와 Coles가 주도하는 가격할인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중소형 할인마트의 시장 잠식 위협이 원인으로 작용함
 -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초저가 할인마트를 표방하는 ALDI는 자체 브랜드 상품(PL) 공급을 통해 중소형 규모의 할인마트로서의 입지를 조금씩 굳혀나가고 있음
- 저축성향보다 소비성향이 높으나, 브랜드보다는 품질과 가격을 중요시하며, 문화적 배경은 구미의 유행에 특히 민감
 - 호주 소비자들은 보수적이며 실용적인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시장은 고가품 및 저가품으로 양분되어 있음
 - 브랜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주요 유통업체 현황

○ Woolworths

주소	1 Woolworths Way, Bella Vista NSW 2153	
전화	+61-2-8885-0000	
웹사이트	www.woolworthslimited.com.au	
회사 정보		
- 1924년 시드니에서 창업되었음 - "Woolworths" 브랜드 전체 호주에 813개의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뉴질랜드에 150개의 점포가 있음. 외에, '빅 W' 브랜드 할인 마트, 주류 소매 체인, 가전 양판점, 주유소 병설 편의점, 술집 등도 운영		

○ Coles

주소	800 Toorak Rd., Glen Iris 3146 VIC	
전화	+61-3-9829-5111	
웹사이트	www.coles.com.au	
회사 정보		
- 1914년 멜버른에서 잡화 인으로 창업하여 1960년 최초의 슈퍼마켓을 개점했음 - 현재 저렴한 상점 ‘바이로(BI-LO)’ 65개 점포를 포함하여 750개 이상의 슈퍼마켓이 전 호주에 운영되고 있음 - 주류 판매점 체인, 주유소 병설 편의점 ‘Coles 익스프레스’등을 운영 - 소매부문 2위 기업		

○ Aldi

주소	1 Sargents Rd., Minchinbury NSW 2770, Australia	
전화	+61-2-9675-9000	
웹사이트	www.aldi.com.au	
회사 정보		
- 1913년 독일 에센에서 창업하여 세계에 7,000 점포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형 할인 소매 체인임 - 2001년에 호주에 진출하였으며 현재는 뉴사우스 웨일즈, 캐피털 테리토리 (ACT), 퀸즐랜드, 빅토리아에 200개 점포 이상을 출점하고 있음 - 저렴한 가격의 슈퍼마켓에 속함		

○ IGA (Independent Grocers of Australia)

주소	50 Waterloo Rd., Macquarie Park NSW 2113
전화	+61-2-9741-3000
웹사이트	www.iga.net.au
회사 정보	
- 미국 IGA(Independent Grocers Alliance)에서 설립한 소규모의 독립적인 소매 업체가 가맹하는 연합체 - 1988년 호주에 진출했으며, 현재 전 호주에 1,000개 점포 이상의 가맹점이 운영 중인 Metcash Distribution(매입총괄 유통업체)	

○ Miracle Supermarket

주소	Shop 9.22 World Square Shopping Centre, 644 George St., Sydney NSW 2001 Australia
전화	+61-2-9267-6041
웹사이트	www.miraclesupermarkets.com
회사 정보	
- 아시아 거주자가 많은 시드니 시내와 교외에 6개의 대형 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식품 슈퍼마켓으로는 최대 규모임 - 동양 각국의 언어에 능숙한 점원들이 매장 내 항상 대기하고 있음 - 주로 백화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신상품과 인기상품이 배치되어 있음	

○ Oriental Merchants

주소	10 Westgate Dr., Laverton North VIC 3026
전화	+61-3-9250-8133
웹사이트	www.oriental.com.au
회사 정보	
- 아시아 식품수입·도매 - 농심, 오뚜기의 라면류 수입 공급	

라. 한국 농식품 시장진출 여건

- 시드니를 비롯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교포, 이민자 등 재외동포수는 13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 대규모 식품수출시장으로는 미약
 - 농수산물 수출의 경우는 아직 미미하며,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주로 교포를 수요층으로 하고 있어 호주 주류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단계에 해당됨
- 건강식품 및 웰빙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 특성에 맞춰 건강·기능성 위주로 한국 농식품 및 식문화 홍보 확대 필요
 - 현지 인구 중 가장 두터운 인구층(약 67%)을 형성하고 있는 Baby boomer 세대의 관심품목인 건강보조식품과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주류시장 홍보 확대
- 농산물의 경우 다수의 청과류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 비해 신선농산물의 검역·운송통관이 매우 까다로워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상존
 - 냉동·진공 포장 되지 않은 육류, 어류, 채소류 등은 검역상의 문제발생 소지가 높고, 수출 수요 자체도 그리 크지 않음
- 라면류, 스낵류 등의 경우 교민 및 이민자 시장은 교민기업이 공급하고, 그 외는 중국계 기업이 Coles 등 현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공급
 - 현지 대형체인 직접 입점은 비용부담이 큰 입점료(약5천만원)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태임
- 면류, 소스류, 스낵류 등 가공식품류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수입대체가 가능함으로 현지 식품기준에 적합한 포장 및 표기사항 등을 준수하고 경쟁상품과의 차별화 전략 필요
- 검역청의 규제 강화로 한국식품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호주 검역청 홈페이지 ICON database(http://www.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를 통해 호주에 수출 가능한 품목인지, 사전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함

마. 한국농식품 진출확대 방안

□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 한국식품의 건강기능적인 이미지 • 중국산 등 타국산에 비해 높은 안전도	• 한국식품의 낮은 인지도와 가격경쟁력 • 고액의 현지 대형유통체인 입점비
Opportunity	Threat
• 건강·유기농 지향적 식품소비 트렌드 • 뉴질랜드와 동일상권으로 재외동포 및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 • K-POP 붐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농식품의 까다로운 검역 및 통관절차 •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 중국, 동남아산 저가 농식품과의 경쟁심화

- * 현지 소비자는 주로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유통매장 진출이 가장 효과적임
- * 현재 한국식품은 대부분 현지 교민이 가공식품을 소규모로 수입하여 교포 및 아시아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유통시키고 있으며, 현지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양은 미미한 수준임

□ 시장 진출 방안

- ① 현지 유통업체의 홈브랜드시장 개척 및 적극적인 마케팅 필요
 - △ 대형 슈퍼체인들의 홈브랜드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감에 따라 이를 한국 농식품업체들의 진출기회로 활용
- ② 호주 현지시장에 맞는 제품개발 노력 강화
 - △ 건강식 · 웰빙식품으로서의 한국식품 우수성 홍보 및 관련제품 개발
- ③ 상대적으로 식문화가 유사한 아시안 마켓 공략 필요
 - △ 중국계 등 대형 아시아식품 유통업체 및 수입상을 대상으로 마케팅 강화
- ④ 현지 식품수입 기준에 맞게 라벨링 및 검역 문제 적극 대응 필요
 - △ 수출업체 및 수출대행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준비 철저

<對호주 한국 농식품 수출상위 30품목>

(단위 : 톤, 천불, %)

구분		2011년(A)		2012년(B)		증감율(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33,933	93,299	38,463	106,436	11.3	8.2
1	라면	2,697	10,576	3,002	11,443	△9.1	△21.0
2	커피조제품	1,099	11,280	998	8,909	△22.0	△8.8
3	비스킷	1,195	5,609	932	5,117	38.3	54.3
4	혼합조제식료품	605	2,291	837	3,535	66.5	261.4
5	대두유	417	885	695	3,198	62.1	187.2
6	귤련	59	1,065	96	3,059	21.1	28.5
7	김	346	2,376	420	3,053	166.0	169.3
8	맥주	1,304	1,084	3,470	2,921	△37.1	121.2
9	채소종자	4	1,055	2	2,333	7.9	69.4
10	젤라틴	251	1,357	271	2,299	△41.3	△50.2
11	곡류조제품	801	4,481	470	2,230	25.7	31.2
12	발효유	1,070	1,677	1,345	2,200	△25.0	△19.3
13	쌀	1,445	2,600	1,085	2,099	40.8	42.3
14	기타소스	428	1,236	602	1,759	18.5	49.9
15	물	1,145	1,126	1,357	1,689	12.9	12.6
16	팽이버섯	817	1,456	922	1,639	97.6	165.8
17	섬유판	462	566	913	1,504	8.1	24.8
18	김치	382	1,162	413	1,451	12.5	△12.9
19	오징어	422	1,602	475	1,396	△12.2	△9.1
20	어류제품	455	1,530	400	1,391	△30.1	△26.7
21	코코아분말	79	1,782	55	1,306	63.3	69.8
22	캔디	190	761	310	1,293	361.4	304.0
23	꽂치	259	299	1,195	1,206	35.7	42.7
24	고추장	376	829	510	1,183	△28.2	△37.8
25	국수	890	1,873	639	1,165	80.2	72.3
26	새송이버섯	178	621	321	1,070	0.7	△6.7
27	소주	912	1,101	918	1,028	62.1	85.6
28	마요네스	226	488	367	905	177.9	88.2
29	인스턴트면	183	480	508	903	△44.6	6.2
30	참치	335	724	186	769	△44.6	6.2

<對오세아니아 한국 농식품 수출상위 30품목>

(단위 : 톤, 천불, %)

구분		2011년(A)		2012년(B)		증감율(B/A)	
		중량(kg)	금액(\$)	중량(kg)	금액(\$)	중량(%)	금액(%)
전체		95,966	235,164	106,220	252,813	10.7	7.5
1	오징어	16,059	39,959	9,741	20,401	△39.3	△49.0
2	참치	444	994	8,898	17,872	1,906.2	1,698.1
3	라면	4,218	16,853	4,421	17,621	4.8	4.6
4	커피조제품	2,205	18,744	2,172	17,086	△1.5	△8.8
5	새끼리민태	8,737	17,285	8,900	16,820	1.9	△2.7
6	돔	3,521	11,660	3,172	13,155	△9.9	12.8
7	젤라틴	1,040	5,966	1,195	9,410	14.9	57.7
8	전갱이	6,064	7,309	5,720	7,599	△5.7	4.0
9	비스킷	1,447	6,811	1,097	6,098	△24.2	△10.5
10	삼치	1,558	2,078	3,915	5,162	151.4	148.4
11	민대구	1,866	6,933	1,936	5,143	3.8	△25.8
12	혼합조제식료품	1,161	3,410	1,243	4,798	7.0	40.7
13	김	579	3,294	698	4,131	20.6	25.4
14	곡류조제품	1,079	5,857	726	3,578	△32.8	△38.9
15	맥주	1,645	1,315	4,014	3,452	144.1	162.5
16	귤련	82	1,435	113	3,395	38.0	136.5
17	대두유	453	961	754	3,310	66.5	244.5
18	김치	862	2,463	961	3,119	11.4	26.6
19	기타소스	558	1,560	886	2,430	58.8	55.8
20	채소종자	5	1,088	4	2,369	△15.9	117.8
21	발효유	1,185	1,783	1,485	2,321	25.2	30.2
22	쌀	1,540	2,772	1,156	2,255	△24.9	△18.6
23	물	2,570	1,784	2,734	2,244	6.4	25.8
24	고등어	834	1,467	1,660	1,898	99.2	29.4
25	어류제품	547	1,807	525	1,775	△3.9	△1.8
26	국수	1,387	2,742	867	1,721	△37.5	△37.2
27	인스턴트면	315	741	1,020	1,666	224.0	124.9
28	팽이버섯	820	1,465	927	1,652	13.0	12.7
29	고추장	494	1,089	671	1,598	35.7	46.7
30	섬유판	505	666	939	1,520	85.9	128.0